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잘난 척하는 약간의 SWAG

'뽕' ,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뽕',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던 하루', 그래도 언제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다. 좁은 공간이지만 퇴근길에는 자기용이라는 소중한 나만의 무대가 있다. 차에 오르기 무섭게 라디오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마침 '얼반합합' 이라고 불리는 박재범, '좋아 (JOAH)'가 흘러 나온다. 나도 모르게 노래에 리듬을 타며 큰소리로 '스웨그, 스웨그'를 외친다.

Oh baby 너무 좋아서 You're driving me crazy/ 니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Na Na Na Na Na Na/ -(중략)-/ 좋아 나 모든 것이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조그만 행동까지 하나 하나/ 다 좋아 니 모든 것이 좋아/ 너와 함께라면 즐거워/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 -(중략)-/ 내 곁에 항상 있어줘 My girl/ I want you and I need you don't ever ever leave my side/

(박재범, '좋아 (JOAH)')

여기서 '스웨그, 스웨그'는 영어 'swag'을 한국어로 발음한 것이다. 본래는 세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에서 '건들거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합



박 여 범

음복중학교 · 시인 · 문학박사

합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힙합 뮤지션이 잘난 척을 하거나 약간의 여유, 허세를 부리는 기분을 표현할 때 쓰인다. 나름 자세를 잡고 뽐미러를 보며, 나이에 걸맞지 않게, 허공을 향해 한 손을 내지른다. 마치, 건들거리는 모양새가 힙합 음악가가 된 것처럼 허세다. 젊은이의 전유물처럼 되어 버린 힙합의 리듬 타기에 도전해 본다. 작은 기대감으로 허우적 거리는 동작에 리듬은 저절로 차오른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인지 기대감으로 도전했던 힙합의 빠른 박자가 부담스럽다. 역시, 세월은 속일 수 없나 보다.

가깝지 않은 거리의 직장을 출퇴근하는 나에게 라디오는 뉴스와 시사, 광고, 노래와 같이 삶의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다. 출근길, M 본부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세계 각국의 사건 소식과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이슈를 한 걸음 더 들여다 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퇴근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라시(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있다. 청취자의 사연은 진행자 문천식과 정선희의 구수한 입담으로 퇴근길을 웃음과 진지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라디오의 변신 중 하나는 '유튜브'와의 만남이다. 이제는 '라디오+유튜브'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이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시청자'라는 문화가 공존한다. 이러한 문화의 참출이 가지는 장점으로는 실시간으로 진행자가 '청취+시청'자의 댓글을 전달해주는 소통의 기회가 많다고 있다.

이처럼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출, 퇴근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시간은 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

지 않으려 노력한다. 아이돌 노래, 힙합, 트로트, 국악, 팝송,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에 빠져보려 한다.

'이렇게 또 하루의 일정 부분이 지나가 버렸구나, 오늘 나는 무엇을 했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상처를 주었을까? 나에게 오늘 하루는 어떻게 기억될까? 정말 인생이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면 어느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다.

나도 모르게 차에서 내려 지하주차장을 걸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리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쿨노래에 어깨를 들썩인다. 지나가던 이웃이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나는 놀리는 척하며 은근슬쩍 인사를 나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새로 나온 신곡과 음악 도표를 검색하고 내려 받는다.

'잘난 척하는 약간의 SWAG'가 필요한 시대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재능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감추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SWAG가 아니라, 공유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에서 선두에 서 보자. 잘난 척하는 약간의 허세와 여유 속에서도 성찰하는 자세를 잊지 말자.

사 설

계속되는 전북 홀대 타파해야

정부의 전북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뭔가 다르리라 기대했는데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 홀대가 거듭 되고 있는데 타파해야 한다.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듣자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북 발전 현안들이 싸잡혀 함께 무시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그렇고, 탄소법 개정이 그렇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그렇다. 물론 이 불만의 소리는 며칠 전에도 토로한 바가 있다.

지금 전북도에게 거듭거듭 할 많은 분명하다. 재북 행기에 보통 이상의 힘을 쏟아야겠다. 이같은 말은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다. 그래도 지금은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수도권과 홀대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주 제3 금융도시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과 전주의 탄소산업이 국책사업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상황을 보면 영 마뜩치

않다. 도시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도민의 분노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처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공조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북도는 재 북을 행기는 역척스러움을 보여야겠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재북을 온전히 행겨야 된다. 전북도 스스로 재북 찾기를 강조해 말했었거니와 다른 광역시도의 그것보다 역척스러워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도민들은 지역 발전을 열망하고 있다.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선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도내 대형 국책사업들이 더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북도의 실효발휘가 절실하다.

KT&G의 연초박이 문제

KT&G의 연초박이 전국적으로 문제이다. 연초박이 익산 잠정 마을에만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전국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북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정말이지 계속해서 시한 폭탄이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잠정마을 민관협의회의 폭로가 충격적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문제의 금강농산 외에도 삼화 그린텍 익산 지점도 비료용으로 공급 받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연초박 사건을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도내에 암 발생률이 높음에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것도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다수 군 지역이 그러니 말이다. 우리 전북이 가난한 고장이기는 해도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믿고 있었는데 뽕박이다. 현재 도민들은 근심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어안이 병병해 할 말을 잊은 이도 있다. 그래서 여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에 의뢰한 연령 표준화에 따른 분석이 그것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암 발생률 상위 10개 시군구 현황' 말이다. 그때 도내 여러 군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는 전혀 허튼 게 아니었지 않다.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 지역 중에 우리 전북의 6개 군이 들어갔다는 것은 보통 사안이 아니었다. 잠수군은 폐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였고 무주군은 췌장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였던 것이다.

우리 전북이 청정 지역임에 잠수 지역임에 자랑해왔던 그 오랜 세월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시사와 해당 군수들은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도내 군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북도가 당장 해결해야 할 속제가 아닐 수 없다. 바리는 바 되는 일은 없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으니 폭폭한 세월이다. 암 발생이 높은 개닭이 무엇인지 속히 밝혀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말이지 공무원 관계자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로 일해야겠다.

사 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유도 사제들과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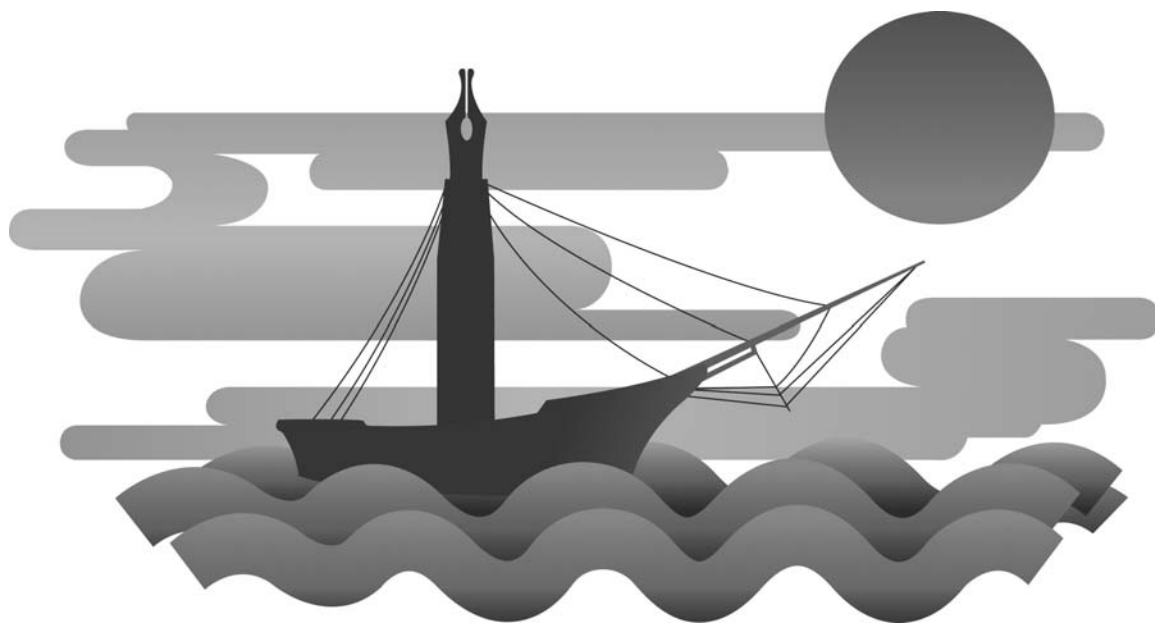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체육관을 방문해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체육관은 푸틴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15년간 유도를 가르친 아나톨리 라클린이 운영하던 곳으로 아나톨리는 2013년 세상을 떠났다. 유도 8단인 푸틴 대통령은 라클린을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추수감사절 대이동



인구 5천만 명이 이동하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된 27일(현지시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전날 미 중서부와 서부 지역에 폭설,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결항하고 도로가 마비되면서 '추수감사절 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